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학 → 도덕 용어에 대해 '해명'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음.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㉞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㉟펼쳤다.

에이어 : 도덕 문장? 애초에 참 거짓을 나눌 수 없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참 거짓으로 나눌 수 있으려면) 분석적 문장 or 종합적 문장이어야 함. 근데 도덕 문장은 둘 다 아니라 진리 적합성 X

Comment : 분석적과 종합적 문장이 뭔지 나오겠구나 +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잡자 + 도덕 문장은 왜 둘에 해당하지 않는가? 세 가지 모두 떠올렸어야 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분석적이려면 '선'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A하다는 속성이 포함되어야 함. 근데 '선'은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순 개념이네? 그래서 not 분석적.

Comment : 예시를 들어보면, '총각은 남자이다'라는 문장이 그 자체로 참이라면 총각이라는 개념 안에 남자라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금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은 느껴서 이건 선이야! 라고 할 수 없지? 경험적 X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이어는 주장했다.

에이어 : 도덕 문장 = 정서적 기능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에이어 : '도덕 문장'에 대한 오해는 '도덕 용어'의 용법을 구분 못해서!

Comment : 당연하지만,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용어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언급된 두 가지 용법의 차이 또한 명확하게 체크했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도덕 용어 : 표현적 용법 or 기술적 용법.

기술적 용법 : 사실을 말하는 용법 → 도덕적인 면이랑 상관이 없음 → 도덕 문장 X, 경험적 검증이 가능 →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음

Comment :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를 보고 아! 애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전 단락을 다시 읽어보자. '경험적 검증이 가능'이라는 것은 앞쪽 단락의 '종합적 문장'에 해당하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단지 '도덕'과는 관련이 없을 뿐이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표현적 용법 : 감정 표현 → 도덕 문장 → 사실 기술 X

Comment : 표현적 용법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에서 당연히 이게 표현적 용법이라는 것을 깨쳐야 한다. 기본이다. 문제로 출제되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

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도덕 문장의 진술 = 감정적인 발언 →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와는 관계가 없는 생뚱맞은 무언가를 기술이 불가.

Comment :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항상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체크하자. 용법 차이는 잘 정리했겠지?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Comment : 여기서 에이어가 부정한 전통적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날려워져 말자. 여기서 그 기본 가정은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와 독립적인 무언가를 기술할 수 있다' 일 것이다. 역시 문제로 출제되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논리학 → 윤리학 이론 비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전건 긍정식 =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 타당함.

Comment : 이미 너무 많이 나온 소재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단독 문장일 때 → 감정 태도 표현가능

조건문에 포함될 때 → 감정 태도 표현 불가능

Comment : '구분하자'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

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단독 문장일 때랑 조건문에 포함될 때 달라짐 → 앞의 P와 뒤의 P가 다름 → 전건 긍정식인데도 Q가 맞는지 알 수 없음.

Comment : 이 문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글썄... 수능 비문학은 학생에게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바로 위 단락에서 P가 단독과 조건문에 포함될 때 달라지는 맥락을 보여줬다. '겉모습은 전건 긍정식인데, 내용이 달라져서 뭐가 안되나 보네~' 정도로 넘어가면 충분하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전건 긍정식의 형태를 가지기에 타당해보임.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의 표절이 나쁘다 Vs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의 표절이 나쁘다>

서로 기능이 다름 → 따라서 타당하지 않음.

Comment : 왜 다른지는 앞에 나온다. 다시 보자.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에이어의 견해(도덕 문장 = 감정, 태도 표현)를 고수할 경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함

1)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정

2) 전건 긍정식은 P 자리에 도덕 문장을 넣을 수 없다고 가정

Comment : 좀 어렵지만 잘 정리해보자. 전건 긍정식이라는 틀 + 에이어의 견해를 함께 생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다. 에이어의 견해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거나, 애초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

었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특정 문장 → 대상에 속성을 부여.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 진술과 문장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음 → 어떤 형태에서나 판단적

Comment : 그렇다고 한다. 이 논리 역시 세세하게 이해할 필요? 없다. 그저 결론과 근거 사이의 커넥션만 잘 정리하면 문제풀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항상 판단적이다. 왜? 진술과 내용이 무관하지 않아서. 또한 ~~에 상관없이 라는 맥락이 나왔으므로 당연히 잘 체크해두어야 한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판단적 =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장의 본질

[A]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판단적 문장 = 참 or 거짓 가능 = 진리 적합성
단독 & 조건문 모두 → 전건 긍정식 타당**

Comment : 참 거짓이 가능하다에서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관없이 ~~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계속 말하지만 기억해놓을 포인트고,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단독 & 조건문 공통점 : 판단적 본질 O, 속성부여하는 내용 O

단독 : 행위 O → 본질 발현 O

조건문 : 대상에 속성 부여 행위 X → 본질 발현 X

Comment : 약간 꼬아놓았다. 이 단락에서는 '본질을 가지는 것'과 '본질을 발현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 판단적 본질(=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가지지만, 그 문장이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지(=본질 발현)의 여부는 그 조건에 따라 다르다.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O. 기술적 용법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Comment에도 언급했지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를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O. 본문의 '반대로 그 문장이 ~ 기술할 수 없음'에서 동일한 바를 표현적 용법은 도덕 문장이고, 감정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O. '우선 그는 ~ 분석적이지 않다.' 부분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문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어와 술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분석적 문장이다.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X.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닌, 사실을 기술하는지 감정을 표현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 O. 에이어는 도덕 용어의 용법의 혼동이 오해를 불러온다고 하였으며,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것이고,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1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X. 행크스에 따르면,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면, 단독, 조건문 포함 여부와 상관 없이 항상 판단적이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X. 행크스에 따르면,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X. 행크스에 따르면, 판단적 본질은 항상 잃지 않으므로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본문의 comment를 꼼꼼하게 읽어보자.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X. 행크스에 따르면,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무관할 수 없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 X. 언제나 이런 종류의 문장은 판단적이라고 하였다.

14. 다음은 뒷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진술에 대해 뒷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①
→ O. (가) 마지막 부분 Comment에 그대로 써 놓았다.
·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②
→ O. '그의 주장대로라면~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③
→ O.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없다고 주장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크스 :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X.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행크스 :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⑤
→ O. 행크스는 판단적 문장의 내용은 항상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내용의 발현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15. 뒷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X.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면에서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단순히 타당하게 보이는 점 자체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O. 조금 까다로운 선지이다. ㉠에 따르면 전건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인 P가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거나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선지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고, 논증이 타당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P는 도덕 문장이지만 감정 또는 태도를 드러내는 문장이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해보자. A라면 B 또는 C이다. B와 C 모두 아니므로, A가 아니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O. 두 전제에서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달라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두 전제의 내용이 일치해야 전건 긍정식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은 도덕 문장 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

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O. '그런데 어떤 문장이 ~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에서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을 활용한 전건 긍정식에서도 두 전제의 문장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O. 애초에 도덕 문장을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과 같은 비판이 존재할 수 없다.

16. 밑줄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밀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X. <보기>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주장이 상충한다고 보려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한쪽의 의견이 맞을 경우 다른 쪽의 이야기는 적어도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다른 의견이므로 서로 상충할 리가 없다...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O. '논증의 타당성은 참, 거짓에 달려있다'는 주장과 '논증의 타당성은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태도에는 참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보기>이 주장은 서로 상충한다.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O.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참 거짓을 나눌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포하므로, '도덕 문장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참 거짓을 나눌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

④ '굵은 맛있다'가 굵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O. 둘 다 참 거짓을 나눌 수 없는 개인 주관의 영역이므로 상충하지 않는다.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O. 역시 둘 다 정서, 태도 등의 표현에 참 거짓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수색하는
- ② ㉡ : 제시하지
- ③ ㉢ : 전파했다
- ④ ㉣ : 발산하는
- ⑤ ㉤ : 공개하여

→ 헛갈린다면 직접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공부해보도록 하자.